"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쁄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바가 될 것임이라" 사 62:3,4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달에 레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월에 있었던 검진을 통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짐을 싸서 레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국 전날 ㅇㅣ란의 ㅇㅅ라엘 공격으로 잠시 하늘 길이 막히기도 했지만 출국일에는 감사하게 하늘 길이 열려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오랫만에 만난 현지 친구들과 선ㄱ사님들께서 안부를 물어주고 저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는 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장의 한 선ㄱ사님께서는 외부에서는 많이 불안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럴때 일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시며 잘 왔다고 환영해주셨습니다. 그 인사말이 아버지께서 해 주시는 환영의 말처럼 감사했습니다. 현지의 시차를 적응하고 다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레국에서는

현장에 오기까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현장의 이웃국과의 전쟁과 확전에 대한 이슈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차로 20여분 거리의 지역에 ㅇㅅ라엘의 전투기공격이 있기도 하는 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쟁의 이슈보다는 새로운 이슈로 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 레국과 ㅅ국 난민들의 인구수가 거의 비슷해져 간다고 합니다. 이 땅이 S국화 될 수있다는 염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로인해 내전의 이야기가 현지인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의 기ㄷ교인들은 긴장하고 있고 이중 국적을 가진 이들은 타국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기ㄷ교인과 ㅁㅅ림들이 균형을 이루어 살았던 이곳이 기ㄷ교인들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ㅁㅅ림들은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어 균형이 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 땅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 께어 기도하고 중동지역에 예수의 향기가 피어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두 손 모아 주세요.

기도 제목

1. 레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음에 감사하며,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주님의 평화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더욱 안정되게 하소서.

2. 내전의 소식(기독교와 ㅁㅅ림의 균형의 깨어짐)이 들려 옵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나라 되게 하소서.

3. 시국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해 철거되거나 재난으로 인해 철거 된 텐트촌 난민들에게 적절한 대책과 도움이 마련되게 하소서.

4.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현장에서의 삶에 주님이 주인되어 주시고 영육혼이 강건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소서.

5. 새로운 언어 조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 되게 하소서.

한 달 전쯤 레국의 기ㄷ교 정치 지도자가 시국 사람에 의해 납치되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시국 난민들이 텐트촌 밖의로 외출이 한 동안 어려웠습니다. 수도(베이ㄹㅌ)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난민들은 지금도 긴장감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시국 난민이 행한 일은 아니지만 시국민에 의한 일이라 난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 이런 일들이 생겨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레국민들에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텐트촌들은 텐트를 철거 하기도 하고 얼마전 전기 누전으로 한 텐트촌(170천막) 전체가 불에 소실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 버린 난민들이 생활터전을 잃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난민들이 이에 대해 시위를 한다며 가급적 외출을 삼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동안 35도를 웃돌던 기온이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20도 안팍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곳을 잃은 이들에겐 너무나 혹독한 5월인것 같습니다. 집을 잃은 이들에게 하루속히 대책이 마련되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 동안 좋지 않던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문이 닫혔던 상점들이 개점하고 중단되었던 공사 현장들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올라갑니다 ㅠㅠㅠ. 레구인들에게 올해가 경제가 살아날 기회라고 합니다. 올 여름에 관광객유치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쟁으로 그 마저도 막혀 버리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니 올 여름, 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을 동안 현장에 계신 선ㄱ사님께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섬기시는 현지 교회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부터 현지 교회에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보수적이지만 따뜻한 목사님과 활기찬 사모님의 환영으로 교회도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저의 앞서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합니다. 나 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잠시 분주했던 사역을 내려놓고 언어에 집중하고 다음을 인도하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내가 주인되지 않고 어버지를 앞서지 않는 내일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길 함께 아뢰며.

레국서 박주희 올림.